



일본

백색계 사육비중 낮아져

일본에서는 자국내 2006년도 산란계 입식수수를 144만수로 전망했으며 백색난이 올해는 62%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까지 백색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기호도 변화로 점차 갈색난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도 생산량을 보면 육계의 경우 생산량이 전해에 비해 6.0% 증가한 반면, 계란 생산량은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계명신문).

이탈리아

아나운서 생방송 중 닭고기 뜯어

AI 공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민영방송 '카날5'의 남자 아나운서가 심야 생방송 뉴스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AI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로스트 치킨을 먹어 치워 눈길을 끌었다.

아나운서 람베르토는 자신의 프라임 타임 뉴스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에게 "이탈리아인들에게 닭고기를 먹는데 대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 뒤 갑자기 닭다리를 뜯기 시작했다고 전했다(Focus).

EU(유럽연합)

난세척 필요성 대두

EU 식품감시원의 보고에 따르면 난세척에 대한 권장사항은 물론 식란공장장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장비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유럽식품안전국(EFSA) 판정단들은 공장내에서 난세척, 청소, 장비건조 등을 위한 보다 좋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유럽에서 계란은 Salmonella Enteritidis에 의해 주로 감염되어 살모넬라 식중독(Salmonellosis)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세척과 코팅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는 못하였다.

EFSA 판정단은 각국으로부터 난세척이 식품의 오염과 인체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을 발견했지만 그 요구사항의 실익을 비교함에 있어 표면에 세척공정이 필요 한지는 더 많은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FSA는 식품안전을 위해 난세척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표면세척실험에서 세척난의 오일링과 저장조건에 대한 영향도 함께 조사되어야 하며 난각의 파괴없이 외부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신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WP).

러시아

2009년까지 쿼터량 유지

러시아의 재정부 장관은 가금류를 포함한 육류의 수입쿼터량을 2009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래프 장관은 현재 쿼터체계를 개정할 계획은 없으며 2009년 이후 쿼터량을 유지할지 여부는 국내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려는 다른 국가들과의 WTO(세계무역기구)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WP).

네덜란드

동물원 AI 백신접종

유럽회의에서는 지난 10월에 동물원에 있는 조류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AI백신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11월 14일부로 동물원에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인터베타사는 AI백신을 무상으로 동물원에 공급하기로 약속했

다. 인터베타사의 H7백신은 2003년도에 이미 네덜란드의 동물원에 사용되었다. 현재 발병중인 AI 바이러스에 대한 동사의 백신은 홍콩의 국가공인 AI백신프로그램으로써 널리 이용되어 왔었다. 그간 홍콩에서의 경험과 추가적인 전이 연구에서 모은 정보들은 백신접종이 바이러스 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백신접종이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 돼야만 AI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WP).

브라질

코브 증가 전망

Cobb-Vantress Brasil사와 프랜차이즈 분배사인 Granga Alvorada의 제휴를 통해 남미지역에 600만수 이상의 코브 종계(PS)를 생산하기 위해 1500만달러를 투입하는 사업이 착수되었다. 1일령 코브 원종계 500수가 지난 가을 브라질 서부 Mato Grosso do sul 지역 Agua Clara 단지내로 들어왔으며 이번 사업은 2006년 한 해 동안 목표 생산량이 도달할 때까지 진행되어 질 것이다.

이번사업은 브라질이 6번째 코브 원종계(GPS) 농장을 가지는 것과 Granga Alvorada사가 국내·외 시장에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 농장은 육성사 3동 성계사 6동을 가지고 있으며 14만4천수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이며 다른 농장과 155km이상 떨어져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 농장은 1,215ha가 넘는 지역을 포함하며 남미에서 최고의 안전성 기준을 확보해 소비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디자인 개념들을 도입했다. 앞으로 Cobb-Vantress Brasil사는 매주 60만개의 알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IHP).